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2. 10. 24

어느새 서리가 내려왔고 겨울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미국 국적의 한인 선교사님은 피난 행렬로 폴란드 국경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드론 폭격기 소리에도 평안할 수 있음은 기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되새기며 선교적 존재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 원하며 루마니아에서 소식 전해 올립니다.

♣ 주일학교 부흥을 허락하소서

여름방학(3개월)을 맞아 주일학교 제자훈련과 모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모임은 주일학교 모임에 잘 참석하는 아이들을 선별하여 아라치와 펠디와라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펠디와라 교회에 모여 기도훈련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타와 오르간도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믿음으로 부쩍 자란 청소년들을 보며, 10월 말까지 모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여름에는 모이는 숫자가 줄어드는데,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 모임은 지금까지 변동 없이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제로 주일 학교를 진행하였는데,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브라쇼브의 교회들도 주일학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 브라쇼브 큰 교단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주일학교 부흥에 힘을 모으자고 권면하였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서로 돕고 제가 요청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일학교 사역에 불을 지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펠디와라 교회는 9월 셋째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한 성도는 60세가 되도록 평생 술과 담배, 세상과 짝하여 지금까지도 결혼 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세례받기 전에 술 담배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파네 전도사와 세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 집시들 중에 일부는 기회만 있으면 본인들도 리더가 되고 싶은, 집시로 살아 온 눌린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도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따로 교회 모임을 이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합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운데, 주님께 맡기며 오직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 브라쇼브 지역의 신천지 활동

신천지가 수 년 전에 이곳 브라쇼브에 포교 활동을 집중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철수하였는데, 그때 배웠던 사람들과 한국에서 신천지에 빠져 루마니아로 돌아온 현지인들이 인터넷 전도 및 포교 활동을 하면서 외곽 지역의 교회에 파고 들어가 교회를 장악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도자 기도 모임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신천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브라쇼브 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 신천지 활동에 대해 알리고 이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교육하는 모임을 11월 초에 가질 예정입니다.

♣ 단기 선교팀과 여성사역자 세미나 계획

12월 초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12일간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며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선교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내년 상반기에 루마니아 목회자 사모와 여성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여성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가 도움을 얻고 세움을 받을 수 있기에 여성 사역자들을 돕는 모임을 통해 브라쇼브 교회들에 큰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명자로 깨어나 어린 영혼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도록
2.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에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3. 브라쇼브 교회 지도자들이 세움 받은 사명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4. 세 자녀들이 소명의 길을 잘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